

개인택시 연 매출 2600만원...배달업 사업자 4분의 1

광주·전라·제주 운수업 매출 5760만원...영업비용은 6권역 최고 운수업 영업이익 2920만원...정부 지원사업 수혜 28.5% 가장 낮아

지역 운수업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영업비용은 6개 권역 최고로, 이들의 영업이익은 전국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연 매출은 2610만원으로, 전국 평균(3090만원)보다 480만원 뒤처질뿐더러 같은 지역 배달사업자(1억1290만원)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운수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라·제주지역 소상공인 운수업 평균 매출액은 5760만원으로, 전국 6개 권역 평균(6120만원)보다 360만원 적었다.

광주권 소상공인 운수업 영업비용은 2840만원으로, 전국 평균(2470만원)을 웃돌았더니 6개 권역

최고를 기록했다.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고 영업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광주권 운수업 영업이익은 전국 최저인 2920만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영업이익은 3650만원으로, 대전·세종·충청이 51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 4180만원, 대구·경북 3450만원, 부산·울산·경남 3310만원, 서울·강원 2950만원, 광주권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광주권 택시 개인사업자 연 매출은 2610만원으로, 전국 평균(3090만원)보다 480만원(-15.5%) 뒤처졌다. 택시 평균 영업비용은 930만원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530만원이 휘발유·경유 등 연료비였다. 광주권 택시 영업이익 또한 전국 평균(2050만원)을 크게 밑도는 1680만원에

그쳤다. 같은 지역 화물운송업(7350만원)과 늘찬배달업(1억1290만원) 매출액은 택시의 2.8~4.3배 수준으로 많았다. 늘찬배달은 퀵서비스의 순위리말이다. 택시·화물운송업 차량 구매금액은 평균 3977만원으로, 전국 평균(3709만원)보다 268만원(7.2%) 많았다.

새 차를 구매한 비중은 39.9%였고, 나머지 60.1%는 중고차를 마련했다. 광주권 운수업체들은 가업을 물려받아 창업한 비중이 3.2%로, 전국 평균(1.0%)의 3배 수준이었다. 신규 창업은 64.5% 비중을 차지했고, 운영·소유권을 인수해 창업한 사례가 32.3%로 뒤를 이었다.

기업 승계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권 운수업체들은 평균 업력도 12.6년으로, 전국 평균(11.7년)을 웃돌았다. 반면 창업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11.35개월로, 전국 평균(14.90개월)을 밑돌았더니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짧았다. 광주권 운수업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는

데, 이는 평균(11.3시간)보다 길고 인천·경기권과 함께 가장 긴 영업시간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률은 61.8%에 달했는데, 이는 평균 응답률(47.2%)보다 훨씬 높았다.

협회나 협동조합 등 운수업 관련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85.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77.0%)을 웃돌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90.3%)은 단체 가입이 운수업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택시 운수업자 절반(50.0%·복수응답)과 화물운송업자 93.1%는 '연료비용 상승'을 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택시 운수업자 35.6%는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애로사항으로 들었고, 화물 운수업자 47.2%는 '동일 업종 경쟁 심화'를 택했다.

늘찬배달업자 전원(복수응답)은 업계 경쟁 심화가 애로사항이라고 말했고, 배달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률도 77.8%에 달했다.

정부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다는 운수업자 응답률은 평균 52.8%이었는데, 권역별로 보면 대전

권 수혜 경험이 89.6%로 가장 높았고 광주권이 28.5%로 가장 낮았다.

운수업 실태조사(2020년 기준)는 지난해 10~11월 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늘찬배달업 등 5개 소상공인 운수업체 3138개(광주·전라·제주 372명)를 대상으로 처음 실행된 것으로 늘찬배달업에는 퀵·배달대행·퀵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택시는 조사 대상 모두가 1인 개인사업자였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주·전라·제주지역 택시운수업체는 1만7742개였고, 일반 자동차 운수업 4066개, 용달 화물자동차 운수업 9209개, 개별 화물자동차 운수업 7730개, 늘찬배달업 115개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배달 수요가 증가했지만 택시 등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연료비용 폭등과 업종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 운수업계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보화 지원 등 중기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김동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소장 등이 13일 담양군 금성면 들녘을 찾아 전남 벼 새 품종 '강대찬' 첫 수확현장을 살폈다. 전남 13개 시·군 935ha에서 재배되는 강대찬 벼는 모두 농협이 매입해 전남 대표 쌀 브랜드 '풍광수토'로 전국에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 벼 새 품종 '강대찬' 첫 수확...전남농협 '풍광수토' 생산 활용

13개 시·군 935ha서 시범 재배

전남 벼 새 품종 '강대찬'이 13일 담양에서 첫 수확을 했다.

올해 강대찬 벼는 전남 13개 시·군 935ha에서 시범 재배되는데, 전남농협은 이를 모두 매입해 전남 쌀 브랜드 '풍광수토'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담양군 금성면 들녘에서 벼 새 품종 '강대찬'을 처음 수확하고 수매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김동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소장, 이재연 농협 담양군지부장, 담양지역 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확 현장을 살피고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74만7천t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6.3% 감소한 양이다.

전남농협은 쌀값 폭락에 생산량 감소까지 악재가 겹친 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벼 새 품

종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강대찬'은 올해 정식 품종으로 등록됐다. 쓰러짐과 수박아(싹 틈음),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수확 현장에서는 전남도가 보급한 '수매통'이 활용됐다. 금속 소재로 만든 수매통은 기존 톱밥보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는 올해 벼 수매통 2000여 개를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시설 등에 보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화폐 잘나가는데...

지난해 사용액 2조원 첫 돌파 내년 국비 삭감에 발행 불투명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화폐 사용액이 각각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여의출을 막기 위해 나온 지역화폐는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액은 광주 1조1575억원·전남 1조1540억원 등 2조3115억원으로, 전년(1조5697억원)보다 47.3%(7418억원) 증가했다.

광주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사용액은 7906억원에서 1조1575억원으로, 1년 새 46.4%(3669억원) 늘었다. 전남 22개 시·군 지역화폐 사용액도 7791억원에서 1조1540억원으로, 48.1%(3749억원) 늘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처음 지역화폐 사용액이 각각 1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전남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8849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대 사용액을 기록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6월 발행이 중단된 이후 이달부터 재개되면서 사용액은 같은 기간 기준 6812억원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화폐 사용액은 5조7532억원으로, 누적 사용액 6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광주 6만138개·전남 5만8583개 등 11만8721개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광주 57.4% 감소(756억원→322억원), 전남 49.9% 감소(569억원→285억원)하며 반토막 났다. 대신 광주 지방비 예산은 올해 642억원으로 전년(384억원)보다 67.2%(258억원) 늘었고, 전남은 478억원에서 831억원으로 73.8%(353억원)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신보, 전남쌀 소비 촉진 운동

재단 방문객에 쌀 나눔

전남신보보존재단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전남쌀 소비촉진 운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재단을 찾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다.

전남신보를 찾는 고객에게는 전남쌀 1kg을 준다. 재단에는 우리 쌀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물을 붙이고 임직원들은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한다.

정 이사장은 "최근 쌀값 폭락사태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남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